

16 서천군 농촌 생활 시설 지원

도로 ‘넓혀’ 외지인이 오게 만들자

사업 목적

마을 안팎 도로, 농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같은 농촌의 기반 시설을 설치, 확충,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시설을 설치·확충·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

사업지	충남 서천군의 1)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 기산면, 화양면 2)오지종합개발 사업 :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일대
총 사업비	2009년 사업비(2008년까지 투자 실적): 기산면 8억5700만원(51억7700만원), 화양면 8억5700만원(54억2700만원), 마산면 5억5000만원(16억4900만원), 시초면 5억5200만원(16억5000만원), 문산면 5억5100만원(16억4900만원), 판교면 5억5100만원(16억5100만원)
주요 사업 시행	마을간 연결 도로, 마을내 도로,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충청남도 서천군
사업기간	2005 ~ 2010년

❁ 의미

마을 사람들이 '땅'을 기부하다

화양면 남성리에 거주하는 A씨는
면 소재지로 한 번 나갈 때마다 큰맘
먹고 나서야 했다. 눈앞에 펼쳐진 눈
너머로 읍내가 보이는 데도 길이 나 있



지 않아 마을 반대쪽 길로 한참 동안 돌아가야 했다. 비가 올 경우에는 경운기나 차량을 몰고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이런 애로 사항이 이번 사업을 통해 해결됐다. 눈 한가운
데를 가로지르는 길을 아예 새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땅주인으로부터 이 목적을 위해 땅을 사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
황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땅주인들은 자기들도 불편을 겪던 일이라 도로를 낼 부분의 농지를
군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그들은 군에서 길만 제대로 내 불편만 해소해 준다면 자신의 아까
운 농지 일부가 희생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지 수용을 전제로
수행되는 일반적인 지방정부 사업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동차 길 생기자 생활이 편리해져

화양면 봉명리, 일명 신기부락은 군도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좁디좁은 농로 하나뿐이었
다. 농로 폭은 2.3~2.8m에 불과해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였
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흙길이라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아예 이곳을 넓혀 새로 포장도로
를 만들었다. 노폭은 4m로 확장했다. 전에는 다닐 수 없던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주
민 생활은 훨씬 편리해졌고, 이곳을 방문해야 했던 공무원이나 외지인들 역시 한결 편해졌
다.

서천군은 2008년 11월에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군청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설계기획단을 구성했다. 지역개발팀 6명이 참여해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외부에 설계 용역을 맡길 때에 비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오지 종합개발 사업의 경우 외부 설계용역비가 2009년에 1억3800만원 정도여서 총 사업비의 6.3%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100% 절감할 수 있었다.



[공사 전]



[공사 후]

❁ 또 다른 효과

주민 참여로 마을회관 신축

우리나라에선 농촌마다 대개 마을회관이 있다. 그러나 왠지 소박하다 못해 촌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어느 지역의 마을회관을 가도 모양이 대부분 비슷하다. 서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지붕이나 입구 모습, 벽면 등을 마을마다 조금씩 달리해 마을의 개성을 최대한 살렸다. 이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회관 신축안을 받아 시행했다.

서천군은 농지가 전체 지역의 70%나 될 만큼 산이 거의 없고 탁 트인 평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눈길을 돌리면 사방이 논이다. 1970년대부터 농업 중심지로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대대적으로 길을 내고 경지를 정리했다.

30년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서천군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이란 슬로건 아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마다 신개념의 공동체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농촌테마관광·귀농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확대해 서천군을 전국 최고의 쾌적한 농촌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피터 드러커의
CAIRA 방식에 의한
성과 진단

주민 토지 기증 · 군청 자체 설계로 효율적 마무리

미션

기존의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사업, 즉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을 통합해 농촌 거주 환경의 개선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미션이다. 사업 대상은 걸로 드러난 큰 도로나 주요 농로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안길, 상·하수도, 마을회관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농촌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설로 선정했다.

고객

이 사업의 최대 고객은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면 단위 거주민들의 기초 수요를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했다.

성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 시설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가 성과의 핵심이다. 면 단위로 주민 의사를 철저히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마을회관 같은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에 해당 마을의 주민 의견과 경관 특성을 적절히 반영했다.

변화 관리

서천군은 정비 사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마을에 걸맞은 파생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원마을 조성이나 농촌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농가 소득 증대도 꾀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의 CARA 방식에 의한 사업 성과 진단]

서천군 농촌 생활 시설 지원 CARA 평점 분포

45점

Concentration

대상 마을의 소수 선정과 기반 시설 정비에 집중

Abandon

부재 지주 소유 농지
구역의 포기 및
과감한 사업계획구역
변경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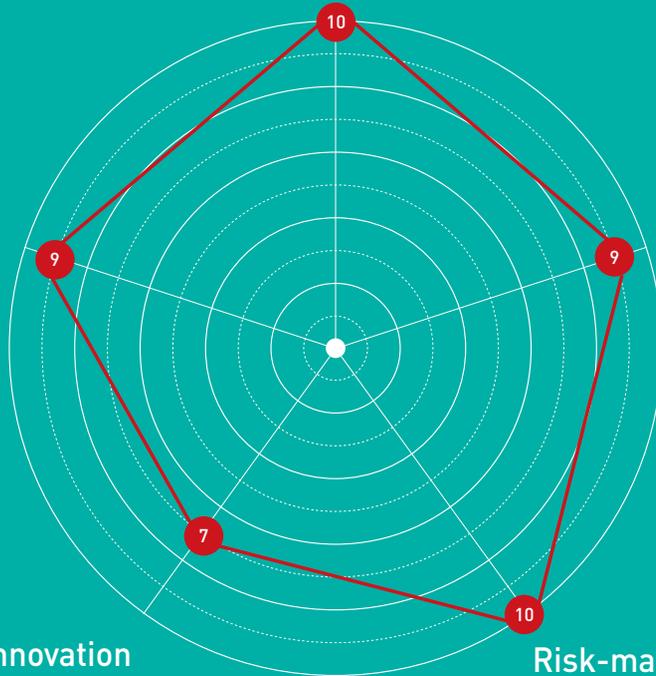
군청 직원과 주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

Innovation

마을 경관 반영한 마을회관
설계의 다양성

Risk-management

거주 농민에 대한 효과적 설득으로
보상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차단



C·A · 집중과 포기 CAIRA · CONCENTRATION & ABANDON

도로 · 마을 공동체 시설에만 집중

사업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사업 설계는 면 단위로 상이한 지역 주민의 의사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의 경우 매년 2개 면으로 사업비를 집중한 결과 예산의 낭비 없이 조기 완공을 이룰 수 있었다.

도로와 마을공동체 등 기반 시설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특히 돋보인다. 이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농촌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촌테마체험 프로그램이나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프로그램까지 백화점식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마을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 건설에만 집중했다. 단순히 외부에 드러낼 목적으로 관청이 주도하는 전시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집중하려는 노력이 빛어낸 좋은 결과다.

I · 혁신 CAIRA · INNOVATION

마을마다 다른 마을회관 디자인

이런 종류의 사업은 대부분 외부의 설계 용역에 의존하지만 이 사업은 역발상으로 군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설계기획단(단장: 건설과장)이 직접 맡았다.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가 감축되고, 사업 노하우를 공무원들이 직접 축적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마을회관 같은 공동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종래에 흔히 있었던千篇일률적 형태를 지양하고 마을의 지리적 특성과 조화하는 설계를 시도한 게 특징이다. 마을마다 다른 디자인의 마을회관은 서천군만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R·A · 위험과 분석 CAIRA · RISK-MANAGEMENT & ANALYSIS

땅주인의 자발적 토지 기증이 성공 요인

토지 수용을 전제로 수행된 사업인 만큼 많은 애로가 예상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땅주인

인 거주 농민들이 의외로 무상 헌납까지 할 의사를 보이면서 사업 수행은 탄력을 받았다.

물론 일부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군은 고심 끝에 과감하게 사업지의 경로를 변경했다.

자체 설계기획단은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주민의 바람과 현지 여건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 관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사업에 참여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생 가능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인과지도 보상비 대신 토지 헌납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해관계가 얽힌 거주 농민들이 토지를 헌납한 점이다. 사실 연결 도로가 잘 만들어지면 모두 편리해지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 보상비를 놓고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덕분에 농번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군이나 혜택을 입을 농민들이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철저한 집중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집중 대상은 선정된 마을의 범위다. 1차적으로 주민의 애로 사항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6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 역량을 집중했다. 두 번째는 사업을 남발하지 않고 권역별로 집중해야 할 개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갔다는 점이다. 군 전체적으로는 장항권역은 문화관광, 서천권역은 정주 여건 개선, 한산권역은 전통 특산물 강화, 내륙권역은 마을 시설 개발, 금강해안권역은 관광축제 개발에 특화함으로써 균형 발전 전략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위한 지식을 자체 생산하려 했던 전체 군민의 합심도 큰 역할을 했다.

